

癌의世界

小兒의 癌

洪彰義

(서울大 醫大 教授 · 小兒科)

10만명에 7명꼴

전에는 전염병이나 영양장애가 소아의 주된 사망원인이 되어왔다. 그러나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런 원인으로 사망하는 어린이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우발사고나 암이 가장 흔한 사망원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현재 선진국가에서는 암이 소아에 있어서 두번째로 흔한 사망원인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 이런 정도로 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런 경향으로 점점 가까와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큰 종합병원에는 소아들에서도 암환자들이 많이 입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암으로 사망하는 어린이가 매년 몇 명이나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지 않으나 미국의 통계를 보면 인구 10만명에 대하여 매년 7명꼴로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

소아에서 흔히 보는 癌의 종류를 들어보면 대략 ①백혈병 ②악성임파종 ③윌름스종양 ④神經芽細胞腫 ⑤中枢神經腫瘍 ⑥網膜芽細胞腫 ⑦骨腫瘍 ⑧生殖器腫瘍 ⑨肝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백혈병으로 소아암의 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治療費도 많지 않다.

소아의 백혈병은 대부분이 급성백혈병이다. 백혈병에 대한 化學療法이 나오기 전에는 급성 백혈병 환자는 진단이 내려진 후 평균 3~4개월 밖에 살지 못했다. 그래서 백혈병이라는 진단이

불기만 하면 수혈이나 해주는 것 밖에 별도리가 없는 절망적인 병이었다.

그러나, 시드니·화버가 처음으로 백혈병에 대한 화학요법을 시작한 이래 약 28년간 급성 백혈병의 치료에는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급성 백혈병에는 임파성과 骨髓性이 있는데, 특히 小兒의 급성 임파성 백혈병은 화학요법으로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이런 환자에게 적절한 화학요법을 시행하면 반수 이상이 5년 또는 그 이상 아무 증상없이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5년이상 생존한 어린이의 다수가 그대로 더 오래 생존하면 아주 치유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물론 5년이상 살고 있다가도 재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가 갈수록 재발되는 율은 적어진다. 급성 임파성 백혈병 환자중에서도 특히 연령이 2~7세 사이의 소아로 처음 백혈구수가 3만 미만인 경우가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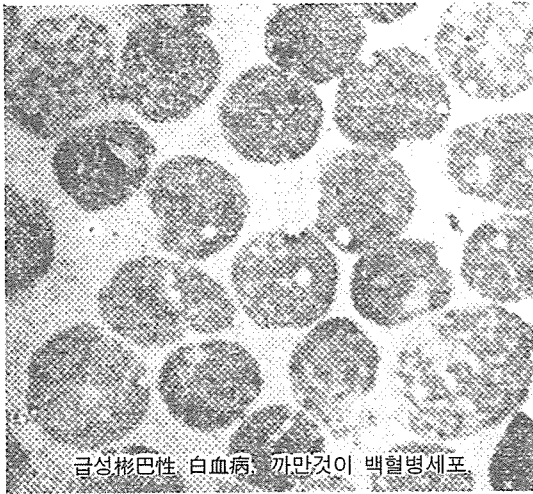
이보다 연령이 적거나 많은 나이나 또는 백혈구수가 3만이상인 아이에서는 豫後가 이들보다 좋지 못하다.

같은 급성 백혈병중에서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화학요법을 시행하여도 임파성같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없으며 치료하는데도 여러 가지 난점이 많다.

물론 이러한 백혈병 환자의 치료는 초기에는 이러한 병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시작해야 하지만 일단 증상이 좋아지면 외래로 다니면서 치료를 계속할 수 있으며 學童兒는 학교에도 계속 다니며 보통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급성 백혈병이라고 진단이 붙었다고

해서 옛날 모양으로 이것은 절망적인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여 그대로 단념하고 집에 데리고 가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식의 생각은 버려야 한다. 특히 어린이의 임파성 백혈병은 치료만 하면 놀랍게 호전, 퇴원해서 다니면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치료하는데 드는 비용도 처음에는 검사 및 치료에 다소의 비용이 들지만 일단 좋아져 다니면서 치료할 때에는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다. 현재 서울대학병원 소아과에는 많은 백혈병 아이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외래로 다니면서 치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래 살아 있는 예로서는 10년 가까이 한번도 재발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아이도 있다.



급성림파性 白血病 꺼만것이 백혈병세포

綜合治療로 큰 成果

백혈병 다음으로 소아에 많은 신장 또는 부신에 오는 암도 외과적인 수술, 방사선요법 및 화학요법을 시행함으로써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우수한 치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소아의 악성 임파종도 역시 화학요법의 발달로 아주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요컨대 소아에 흔히 보는 암은 백혈병을 비롯하여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많은 환자가 완치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옛날 모양으로 덜어놓고 암이라면 절망적이라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태도를 버리고 전문의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도록 하

는 것이 부모들이 해주어야 할 책임인 것이다.

骨 癌

韓斗鎭
〈韓國病院長〉

암은 우리 몸의 어느 부위이고 침범하지 않는 곳이 없다. 따라서 단단한 骨格이라 해서 암의 침범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실제로 골격은 20세 미만에서 백혈병과 淋巴腫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종이기도 하다. 또 골격은 20세 미만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연령층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겠다.

한 마디로 골격이라해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뼈의 조직을 파괴하며 진행되는 형이 있는가 하면, 軟骨이나 뼈의 조직이 무질서하게 자라나는 형이 있고 骨髓가 파괴되고 혈관을 침범하는 형등 다양하다.

轉移이전에 檢診을

이같은 骨癌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처음 발생한 原發부위에서 2차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부위로 옮겨가는 이른바 轉移가 일어난다. 골암은 이같은 전이가 있으면 치유는 고사하고 5년간 살아 남는 일이 거의 없다. 또 골암은 원발성인 종양이 발견되었을때, 다른 암에 비해 이미 遠隔부위로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특이하다.

그러나, 다행한 일은 이같은 골암의 발생빈도는 인구 10만명에 몇 명 꼴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뼈에 생겨난 종양을 흔히 骨結核이나 골수염으로 잘못 誤診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골암의 가장 흔한 자각 증상은 동통이다. 초기엔 뼈속이 때때로 쑤서오며 병이 진행되고 암세포가 더욱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같은 아픔은 계속된다.

그러나, 이같은 아픔은 원발부위의 뼈의 침범된 크기와 관절의 인접여하에 따라 차이가 있고

암 종류에 따라서도 심하게 올때와 둔하게 어릿한 정도일 때도 있다. 뼈속의 암이 더욱 자라면 부어 오르고 혹이 만져진다. 특수한 몇 가지 암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전신증상은 없다.



골의골에서 생긴 骨肉腫이다. 뼈에 혹같은 생겨나 있음을 보여준다.

外傷없다가 부어올라

따라서 골암은 외상이 없어 뼈속이 쭈시거나 둔하게 아파올 때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발견의 첩경이라 하겠다. 몇 가지 중요한 골암의 증세와 원인 치료법을 소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 骨肉腫：原發性 골암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다. 10~25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大腿骨 下端部와 下腿骨 上端部에 흔하게 발생한다. 무릎 위나 밑뼈속에 아픔이 있다. 아픔은 초기엔 간헐적으로 나타나나 진행되면 계속된다. 더욱 진행되면 뼈에 혹같은 것을 만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무릎이 부어오르고 뼈마디 운동이 완전히 되지 않아 걸음을 절게 된다. 그리고 더욱 진행되면 암이 혈류를 타고 다른 뼈와 폐 등 臟器로 전이된다.

早期에 病巢 도려내야

초기엔 발견, 病巢를 도려내는 수술 요법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완치되었다고 보는 5년 생존율은 20~30%에 이른다. 그러나 일부의 보고

는 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② 유령씨腫瘍：비교적 드문 병이지만 10~15세에서 많이 생겨난다. 다른 암과 달라서 온몸에 미열이 나타날 때가 있고 쇠약해진다. 그리고 뼈속이 아프고 부어 오른다. 통증이 있는 부위의 뼈를 만지면 덩어리 같은 것이 만져진다.

骨盤의 뼈와 上·下肢의 길다란 뼈 한 가운데에 주로 생겨난다. 방사선 요법을 행하며 5년 생존율은 2~3% 정도로 보고 있다. 완전치유가 힘들다.

③ 纖維性肉腫：청년기와 중년기에 발생한다. 주로 下腿와 大腿骨에 많이 생겨난다. 동통이 심한 것이 특징이다. 조기에 발견, 적절한 치료를 하면 치유 가능성이 높다.

④ 軟骨肉腫：原發性 골암의 약 10% 정도로 骨癌 가운데는 비교적 흔히 찾아볼 수 있다. 大腿骨과 上膊骨 등의 骨端部(뼈마디와 근접한 부위)나 骨盤의 뼈에 많이 생겨난다. 호발 연령을 40~55세. 아픔은 둔한 편이지만 계속되며 뼈의 덩어리가 만져진다.

병은 비교적 느리게 진행된다. 조기에 발견, 적절한 치료를 하면 치유가 가능하다.

⑤ 多發性骨髓腫：骨腫瘍 가운데 비교적 흔한 편이다. 50~70세에서 많이 발생한다. 나이가 들어 생겨나기 때문에 진단이 확정되지 않는 때가 많다. 온몸에 막연한 가벼운 동통이 있고 쇠약해진다.

빈혈증이 나타나는가 하면 체중이 감소한다. 허리와 척추가 아플 때가 많고 肋骨이나 목뼈에 덩어리 같은 것이 만져진다. 3년안에 대개 사망한다. 여러가지 증세를 덜어 주는 요법을 한다.

이밖에 골격이나 筋肉關節에 여러가지 종양이 생겨날 때 우선 전문의와 상의, 골암의 조기진단에 힘써야 할 것 같다.

골암도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조기에 발견되 기만 하면 암이 생겨난 뼈를 송두리째 절단해 내지 않고서도 病巢만을 수술로 제거한다든지, 化學과 방사선 요법을 통해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